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6/07/27~2026/08/02]

2026.08.03

[로봇] 2분기 실적 발표, 로봇 관련 주요 코멘트

- 현대차는 미국 아틀라스 생산공장 실사, 삼성과 LG전자도 로봇 사업 본격화
- 엔젤로보틱스의 액츄에이터, 케이엔알로보틱스의 로봇 핸드 공개로 상한가 기록
- 유니트리 공모주 청약 일정 8월 10일 개시. 애지봇도 홍콩 상장 추진

[방산] 미국의 미사일 부족 심화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규모 계약 공시. 세부 내용은 미공개
- 정부 방산 수출때 협력업체 적정이윤 보장 방안 검토. 부체계 업체 수혜 기대감
- 미국 패트리엇 재고 절반 이하로 소진. 미 정부 및 업체의 본격적인 증산 움직임

[조선] LNG 시장에서 커지는 중국 존재감

- 삼성중공업 이번 주 M3와 플로팅 데이터 센터 엔지니어링 계약 예정
- 한화오션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항 계약 수주 공시
- GTT 실적 발표에서 LNG 신조 수요 전망 상향. 중국 조선소들 LNG 수주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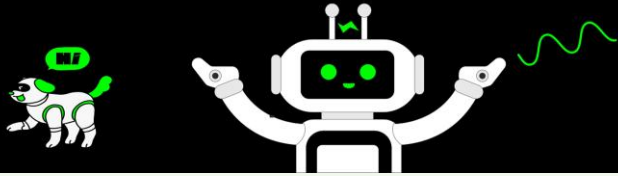
[항공] 엔진 MRO 수요 확대

- 항공기 인도 지연에 MRO '슈퍼사이클', 대한항공 글로벌 톱10 정조준
- '반도체' 효과 본 대한항공, 말레이시아 화물 운송 발 빠르게 확대
- 유가 충격 버티는 항공사들, '객단이 높이기' 총력전

[해운] 팬오션 서프라이즈

- 후티 위협으로 바브엘만데브해협 통행량 격감, 사우디 다국적 해상방위연합 창설
- 팬오션 2분기 영업이익 1,937억원, 벌크·탱커 호황에 시장 기대치 상회
- BIMCO, 호르무즈해협 혼란 지속과 옐니노가 벌크 시장 좌우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eekly Keyword

2분기 실적 발표, 로봇 관련 주요 코멘트

주요 기업 2Q 실적 발표에서 로봇 관련 코멘트 다수. 특히 LG와 삼성에서 본격적인 로봇 사업화 움직임. LG는 액츄에이터 중심, 삼성은 구미를 중심으로 사업화 추진할 계획.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36)

[2분기 실적 발표, 로봇 관련 주요 코멘트]

- **현대차그룹**은 2Q26 컨퍼런스콜에서 소프트뱅크의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풋옵션 행사 사실을 확인. 현대모비스는 보스턴다이내믹스 아틀라스용 바디 액츄에이터 프로토타입을 11월에 납품할 예정이라 언급.
- **LG전자**는 창원공장에 액츄에이터 파일럿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현재 초도 물량을 생산하면서 양산성 검증과 품질 안정화 작업을 진행 중. 하반기부터 잠재 고객 대상 수주 활동을 시작하고, 수주 가시성에 맞춰 본격 양산체제 구축도 추진할 계획. 장기적으로는 2030년께 액츄에이터 사업을 전사 성과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규모로 육성할 계획.
- **삼성전자**는 로봇을 미래 산업 핵심 분야로 강조. 구미에 로봇 생산 파일럿 라인과 데이터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 B2B 현장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확보 후, 단계적으로 B2C 영역까지 확장. 최종적으로는 고기능 다목적 휴머노이드를 목표. 해외 스타트업과 협력 및 추가 인수 검토.

Key Chart: 주요 3사 로봇 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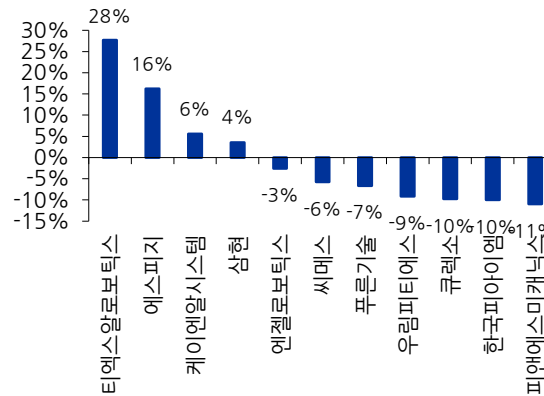
구분	삼성전자	LG 전자	현대차그룹
조직	대표이사 직속 RX 사업추진실 신설	대표이사 직속 로봇사업센터 신설	조직 개편보다는 현장 실증 중심 전략
핵심 역할	전략 수립·핵심기술 개발·사업화 총괄	사업개발·영업·운영·SCM·생산까지 전 과정 담당	휴머노이드 로봇 현장 투입·실증·고도화
현장 적용	구미 '데이터 팩토리' 구축, 현장 실증 체계 마련	산업용·상업용 가정용 로봇 시장별 제품화 및 공급	'아틀라스' 공장 생산공정 단계적 투입 2028~2030년
데이터 전략	현장 데이터 → R&D 공유 → AI-제어 모델 개선	로봇용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및 사업 데이터 활용	현장 데이터 수집 → AI 학습 → HW-SW 개선
현재 단계	조직 출범·연구 인프라 확충, 제품·일정 미공개	조직 출범·사업 체계 구축 및 제품 개발 추진 중	현장 투입 로드맵 공개실증 및 생산 준비 단계

자료: 조세일보, 유진투자증권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07/27~08/02)

[전통 로봇]

- 두산로보틱스, 현대차에 협동로봇 추가 공급

[휴머노이드]

- 현대차그룹, 내년 해외 고객사에 아틀라스 첫 투입
- 현대차그룹 미국 아틀라스 생산공장 실사 착수

[부품/SW/기타]

- 삼성 "휴머노이드, 제조·물류서 B2C로 단계적 확장"
- 삼성 "구미 로봇 생산 파일럿 라인, 데이터 팩토리 구축"
- LG전자 "액츄에이터 초도 생산. 하반기 수주 활동"
- LG이노텍, TDK와 촉각센서 개발 추진
- HL만도, 자동차 넘어 로봇 액츄에이터가 핵심 성장축
- 로보티즈, FCC 인증 부품으로 美 로봇시장 공략 강화
- 뉴로메카, 전략적 투자자 2곳 유상증자 참여
- 엔젤로보틱스, 로봇 액츄에이터 모듈 '팩트' 공개
- NC AI, 씨메스로보틱스와 '피지컬 AI' 맞손
- 케이엔알시스템, 최대약력 300kg '로봇손' 개발

[글로벌]

- 유니트리, 10일 커황반 공모주 청약 개시 '상장 임박'
- 유니트리, IPO 후 2만대 CAPA 구축. 총 3만대 CAPA
- 中 휴머노이드 기업 애지봇, 홍콩 상장 절차 개시
- 中상무부, 美 첨단로봇 수입 금지령에 "단호히 대응"
- BYD, 다음달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
- 테라라인 로보틱스 2Q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
- 구글 제미니로보틱스2 공개
- 美 제너럴리스트,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핸드 제어"



Weekly Keyword

미국의 미사일 부족 심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미국의 미사일 부족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미 정부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고 업체들도 증산 추진. 일회성 이슈가 아닌, 장기 사이클의 시작.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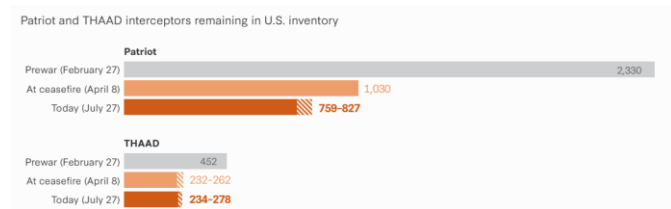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84)

[미국의 미사일 부족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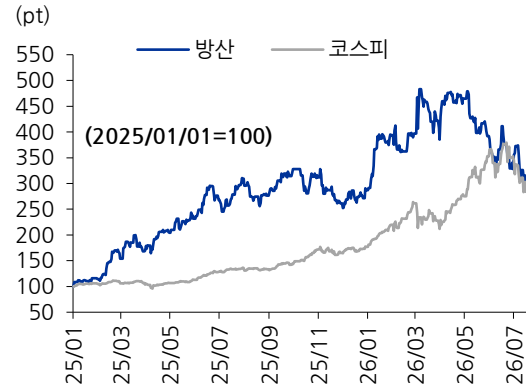
- 미국은 중동 방공 작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이 겹치며 Patriot, THAAD 등 고성능 요격탄 재고 부담이 커짐. CSIS는 현재 Patriot 재고가 1,000발 미만, THAAD 재고가 약 250발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 Patriot, THAAD, PrSM은 초기 재고의 약 절반을 사용했고, JASSM, SM-2/3/6, Tomahawk는 약 3분의 1 사용. 우크라이나 지원도 부담 요인.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Patriot 요격탄 약 600발이 제공됨. 재고 부담으로 미 육군은 약 30년 만에 PAC-2 GEM-T 주문을 재개.
- 이에 미국은 PAC-3 MSE 증산을 본격화. 미 육군은 Lockheed Martin에 최대 586억달러 규모의 7년 장기계약을 체결. 록히드마틴은 2030년까지 20개 이상 미국 내 생산시설에 80~9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
- 미국 방공탄 부족은 일회성 재고 이슈가 아니라 장기 증산 사이클의 출발점으로 판단. 미국 생산능력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동·유럽 국가들의 非 미국 방공 공급망 다변화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

Key Chart: 미국 요격탄 재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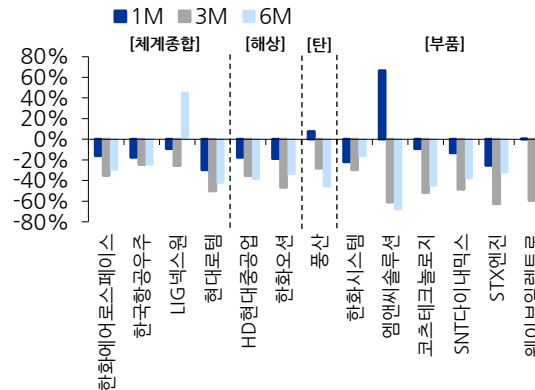


자료: CSIS,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07/27~08/02)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 매출액 2.5% 이상 기본계약 공시
- 현대로템 K2전차, 페루 육군 150대 도입 낙점

[기업별 이슈]

- 한화, 군 다목적무인차량 사업자 공식 선정
- 한화에어로 이부환-한화시스템 양기원 대표 내정
- 한화그룹, KAI 지분 14.64% 확보
- LIG D&A, '수난구조 무인수상정' 개발 착수
- LIG, 함대공 미사일 'KSAM-II' 시제기 조립
- LIG D&A, 필리핀에 '현궁' 초도물량 납품 완료
- KAI, 헬리콥터 '심장' MGB 조립장 확장
- KAI "인도네시아, KF-21 최대 48대 구입 전망"
- KAI,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차세대 민항기 개발 협력
- 대한항공, 브라질 엠브라에르와 협력

[기타]

- 정부 "방산 수출때 협력업체 적정이윤 보장"
- 다음달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 업체 선정 추진
- 국방부, 교육용 상용드론 1만 1,000여대 계약 체결

[글로벌]

- 미군, 패트리엇 재고 절반 소진
- 美 패트리엇 재고 고갈로 대이란 작전 보류
- 美, PAC-3 3배 및 THAAD 4배 증설 위한 7년 계약 체결
- 록히드마틴, 아치볼드 공장 규모 두 배 확장
- 미 육군, 재고 부족에 30년 만에 PAC-2 GEM-T 주문
- 美 3억원대 저가 미사일 대량생산 체계 구축 착수



Weekly Keyword

LNGC 시장에서 커지는 중국 존재감

중국의 LNGC 수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작년 3척 수주에서 올해 23척으로 확대. 자국 발주 중심에서 발주처도 다양해지고 있음. 장기적인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유의 필요.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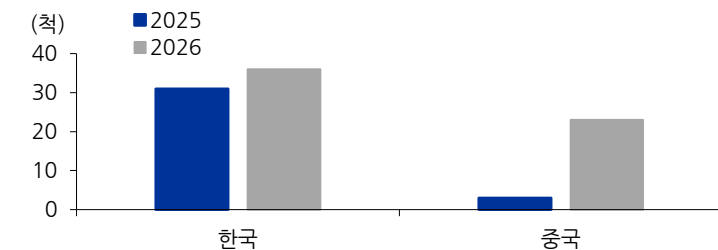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4)

[LNGC 시장에서 커지는 중국 존재감]

- 선박 중개업체 반케로 코스타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가 글로벌 LNGC 수주에서 처음으로 한국을 앞선 것으로 확인(중국 34척, 한국 32척).
- 다만, 클락슨 기준 7월 누계 LNG선 발주는 총 59척이며, 이 중 한국 조선사가 36척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 점유율은 약 61% 수준으로, LNG선 시장에서 한국 우위는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2025년에는 중국이 3척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경쟁 구도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점은 사실. 중국 자국 발주 중심에서 아랍에미리트 (ADNOC L&S), 싱가포르(EPs), 그리스(TMS 카디프가스), 말레이시아 (MISC) 등 중동·유럽·동남아 선사로 다변화되고 있음. 중국의 급부상에는 한국 조선소의 부족한 도크 슬롯, 중국 조선소의 가격 경쟁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힘. 중국의 조선소의 건조 경험 축적은 경쟁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

Key Chart: LNGC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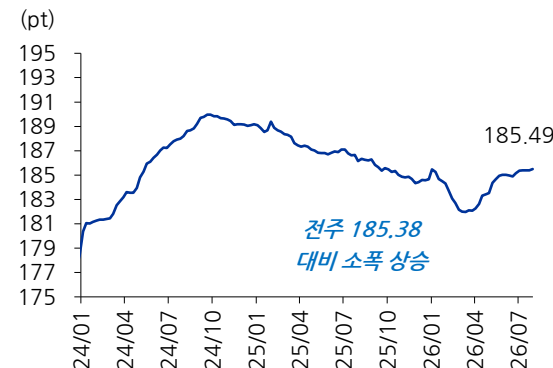


자료: 클락슨,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07/27~08/02)

[상선/해양]

- 대한조선 \$92.3m 수에즈막스 2척 수주
- HD현대마린엔진 \$33.0m 선박엔진 수주
- 삼성중 FDC 내주 美 M3와 엔지니어링 계약

[특수선]

- 방사청·한화오션, KDDX 선도함 본계약 체결
- 美 군함 도입사업 총괄 수장, 필리핀조선소 전격 방문
- 한화오션, 칠레 잠수함·호위함 전략 파트너십 추진
- HD현대중, 엑스포나발서 함정건조 모델발표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 추진

[기타]

- HD한국조선해양 미국 프리저저와 조선소 현대화
- HD현대 필리핀조선소 첫 배 띄웠다
- 한화 美 필리핀조선소 '연내 2배' 프로젝트 청사진
- 디노티시아-STX엔진, 방산 AIDC 구축 MOU
- HD현대중, 중대재해 잇따라 전 사업장 생산 중단

[글로벌]

- 中, LNG선 첫 韓 추월. 7월 누계 中 34척 韓 32척 수주
- GTT, 2035년까지 LNGC 신조 수 550척 제시
- 카타르에너지, 단기 용선용 신조 LNG 운반선 제공
- 中 선박 엔진 자체 조달. 한국 독주 시대 마감하나
- 美 해군, 잠수함 건조에 766억 달러를 승인
- 美 국방부, 공격용 드론 발사 무인수상정 요청
- 美 해군, GARC 무인 수상함 첫 실사격 훈련 실시
- TKMS "유럽 해양방산 통합. 바다의 에어버스' 구축"



Weekly Keyword

엔진 MRO 수요 확대

항공기 공급 부족이 지속되며 신규 기재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평균 기령 상승. 노후 기재 운항 연장으로 엔진 정비 수요가 확대되며, 대한항공 MRO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84)

[엔진 MRO 수요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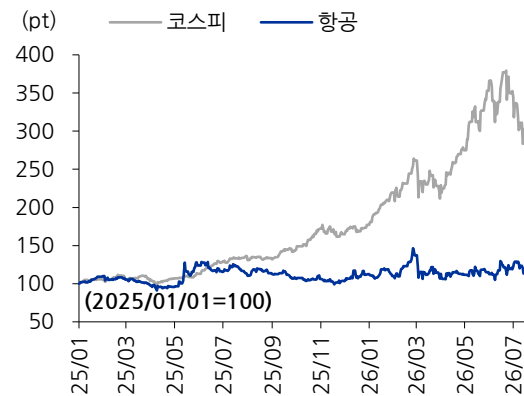
- 에어버스가 2Q26 항공기 237대를 인도하며 공급 정상화 기대를 높였으나, 항공기 공급 부족 해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수주잔고는 18,000대를 상회하며, 신규 기재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항공기 평균 기령은 역대 최고치인 15.2년까지 상승한 상황.
- 노후 기재의 운항 기간이 연장되며 엔진 정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항공 MRO 시장 성장세는 지속될 전망. 대한항공은 2027년부터 영종도 엔진 정비 공장을 본격 가동해 연간 엔진 정비 능력을 기존 100대에서 2030년까지 약 500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자체 정비 효율화와 더불어 외부 항공사 정비 물량 수주 확대 기대.

Key Chart: 대한항공 항공 MRO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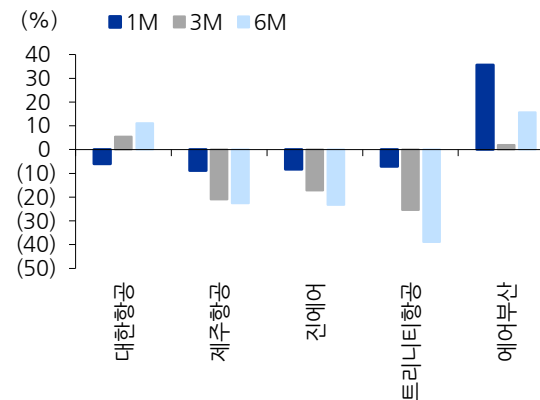


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07/27~08/02)

[여객/화물]

- 유가 충격 버티는 항공사들, '객단이 높이기' 총력전
- LCC, 장거리-중화권 노선 다변화로 여름 성수기 잡는다
- 전자상거래 대신 AI 칩, 아시아 항공화물 지도 바뀐다

[기업별 이슈]

- 반도체 효과 본 대한항공, 말레이시아 화물 운송 확대
- 대한항공, 기내식 자회사 지분 전량 인수 일정 연기
- 대한항공, 중국 하이난서 B787 4대 전체 도장 발주
- 아시아나항공, 호놀룰루 노선 비운항 1년 연장
- 진에어 9월 중 이창 신규 취항, 장가계부터 장강삼협까지
- 에어프레미아, 재무건전성 강화 위해 1,100억원 유증
- 파라타항공 1H26 국제선 4,678톤 운송, 화물 사업 확대
- 제주항공 출국 대기시간 단축 총력전, 수하물 사전 예약
- JAS, 제주항공 배당 멈추고 계열사 이자수익으로 실리
- 에어제타 출범 1주년, 글로벌 화물 전문 항공사로 도약
- 부여군-에어로케이항공, 지역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기타]

- TS, 5개 국적항공사와 항공안전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 우주청, 303억원 투입해 재활용 항공소재 국산화 착수
-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인도 지연에, MRO '슈퍼사이클'

[글로벌]

- 美, 이란 마한항공 지원 혐의 중 2개 업체 제재
- 콰타르 에어버스 항공기, 24시간 24분 무착륙 비행 기록



Weekly Keyword

팬오션 서프라이즈

운임 강세와 선대 원가 경쟁력 개선으로 팬오션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 하반기에도 견조한 벌크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VLCC 선대 확대를 통한 중장기 탱커 이익 성장 기대.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RA 임범수

02) 368-6168_beomsu@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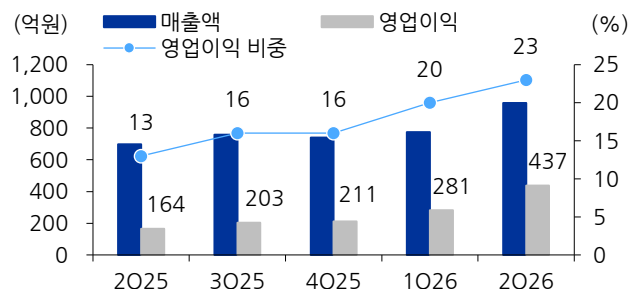


What's new? - 해운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27)

[팬오션 서프라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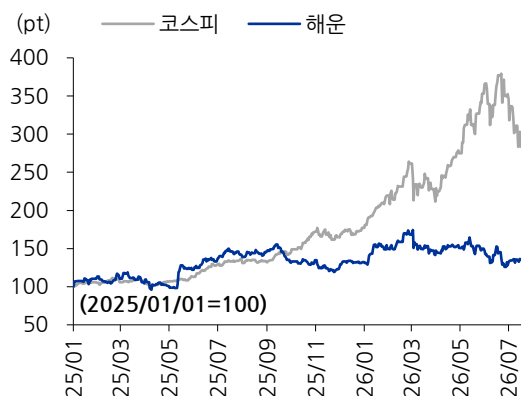
- 2Q26 팬오션 매출액 1조 9,137억원(+48%yoy), 영업이익 1,937억원(+57%yoy)으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 기록. 벌크 운임 강세와 중국항 남미산 대두 트레이딩 증가로 매출이 확대됐으며, 선대 원가 경쟁력 강화와 대서양 MR 시황 강세에 힘입어 OPM은 10.1%로 상승. 견조한 브라질 철광석·기니 보코사이트 물동량과 대체 원유 조달에 따른 톤마일 증가로 벌크·탱커 실적이 개선됐으며, LNG선은 전선대 온기 반영되며 장기대선계약 기반으로 안정적인 이익 기록.
- 이번 실적은 우호적인 시황과 선대 경쟁력이 반영된 결과로,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 벌크 시황은 중국 철광석 수입과 대서양 원자재 물동량 등 견조한 실물 수요가 하방을 지지할 것으로 판단. VLCC 선대는 기존 2척에서 SK해운 중고선 10척과 신조선 도입을 통해 향후 21척까지 확대될 예정. 장기계약의 안정성과 스팟 시황 강세 전망을 근거로 향후 탱커 이익 기여도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

Key Chart: 탱커 사업부문 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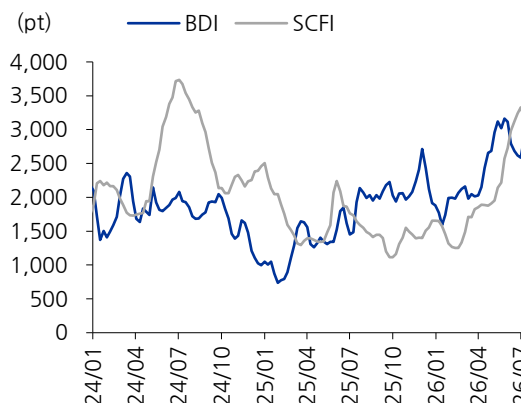


자료: 팬오션, 유진투자증권

국내 해운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해상운임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해운 주요 뉴스(07/27~08/02)

[벌크선]

- 호르무즈 해협 혼란 지속과 엘니노 현상, 벌크 시장 좌우
- 2Q26 니켈광석 선적량 +22%yoy 증가, 벌크 수요 확대

[탱커/가스선]

- 팬오션, VLCC 확대 자신감 원천은 '선박 관리'
- NYK, 미드오션 에너지 투자로 LNG 밸류체인 확대
- 한화해운 사가르 대표, 美 에너지·해운 공략 청사진 내놓나

[컨테이너선]

- 정기선사, 주요 항로 내 공선 운항으로 공급 과잉 통제
- 1H26 컨테이너선 해체 11척, 사상 최저 수준 기록
- Maersk, 북유럽 역내서 수송능력·시장점유율 확대
- 조디악 마리티임, 中 조선소에 6,400TEU 8척 발주
- STX엔진, Maersk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친환경 엔진 공급

[기타]

- 美·이란 분쟁 격화로 보험료 급등, 유지조건도 강화
- 美 재무부, 해협 통항료 관련 해상보험사 두 곳 제재
- 후티 반군 위협으로 바브엘만데브 해협 통항료 격감
- 유럽위원회, 소형 선박에도 EU 배출권 거래제 적용
- 영국, 7/1부터 'UK ETS' 해운 부문으로 확대 시행
- 일본 2개 은행 합병, 128억달러 규모 선박금융그룹 탄생
- 현대글로벌비스 中 배터리 해상운송 수주, 유럽 공급망 확대
- 팬스타그룹, 정밀 반도체장비 해상운송 절대 강자로 주목
- NYK그룹, 노르웨이 해운사 Saga Welco 인수 완료